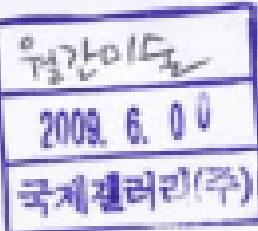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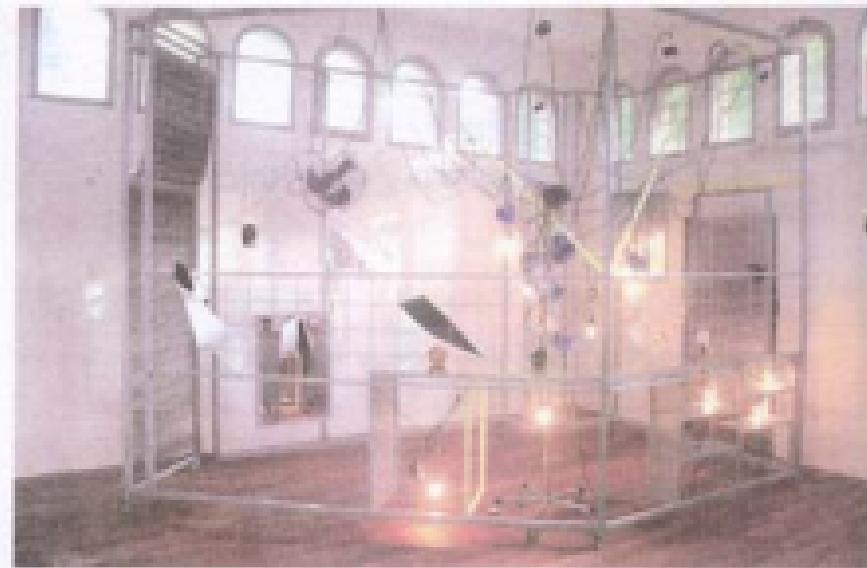
제53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오픈 양해규, 개인전 <옹길>을 통해 신작 선보여

제53회 베니스비엔날레의 한국관 전시가 6월 4일 개막한다. 한국과 거리에서 많은 놀죽 뉴뮤지엄(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)의 주은지 큐레이터는 양해규를 한국관 단독 작가로 선정했으며, 작가는 개인전 <옹길>을 통해 신작 3점을 선보인다. 비디오 <향과 만족-이를 없는 이웃들과의 사건들>은 작자가 자주했던 서을 이현동과 비수기에 인적이 드문 비엔날레 한국관 주변을 활영한 영상을 연결하여 간파된 두 지역을 제조망한다. <살립>(사진)은 작자의 배틀린 김 부엌을 실물크기로 재현한 대형 조각이다. 작가에게 부엌이란 마사화·경제적인 공간이자 삶의 활동을 준비하는 곳으로, 이 작업을 통해 부엌과 타인, 외부공간을 연결한다. 블라인드 설



치작 <일련의 디자인 위
온 배현-목소리와 바
람>은 자연광과 선풍기
바람이 그림자와 음악
인 소리로 재구성되는
작업이다. 블라인드가
제공하는 공간은 사적인

양적인 동시에 차이와 티자를 구분하는 영역이
다. 작가의 작업에서 <전력>은 오르계와 관람객
을 아여주는 연결고리로 작용해왔는데, 이번에
도 선풍기와 향 분사기 등을 이용하여 공간에 대
한 관람객의 공간각각한 반응을 어끌어낸다. 또
한 양해규는 이번 비엔날레의 총감독인 다니엘
먼바움이 기획한 본전시에도 참여하여 7점의 라



이트 조각으로 구성된 설치를 보여준다.

한편 제53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공식 후
원사인 한진해운(대표이사 강영만)은 양해규의
<옹길전>을 지원한다. 한진해운은 국가 홍보와
사회 공헌 취지 하에 활발한 예술나 활동을 펼쳐
왔다. 이번 베니스비엔날레는 6월 7일부터 11월
22일까지 열린다.